

보도시점 : 2026. 9. 2.(수) 06:00 이후(9. 2.(수) 석간) / 배포 : 2026. 9. 1.(화)

항공업계, '25년 안전에 13.3조원 투자

- 전년 대비 115.5% 증가...신규 항공기 도입 및 정비·부품 등에 투자
- '26년 17.4조원 투자 계획...신규 항공기 60대 도입 등 안전투자 지속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내 17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2개 기관의 '25년 항공안전 투자실적과 '26~'27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25년에는 총 13조 3,098억원을 안전 분야에 투자했으며, '26년에는 17조 4,462억원의 투자가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12개, 소형항공운송사업자(K-에비에이션, 글로리아항공 등) 5개

- '25년 투자액은 전년(6조 1,769억원) 대비 7조 1,329억원(115.5%) 증가했으며, 항공사·공항운영자 등 모든 부문에서 투자 규모가 확대됐다.
- 이번 공시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총 19개 사업자의 '25년 투자실적과 '26~'27년 투자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 '25년 항공안전투자 실적 》

□ 주요 안전투자 항목을 보면,

- '26년 공시부터 기존 경년항공기(Aged Aircraft) 교체만 인정하던 항공기 관련 투자를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까지 확대하고, 정비사만 인정하던 인건비도 운항·객실승무원 등 항공안전 관련 종사자의 고용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안전투자 인정범위를 확대했으며,
- '25년 신규 항공기 43대 도입에 3조 8,798억원, 안전 관련 종사자 고용 비용에 3조 3,817억원을 투자하였다.
- 이러한 신규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국적항공사의 평균 항공기 기령은 '24년 12.4년에서 '25년 12.1년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 3조 3,848억원, 엔진·부품 구매·임차에 1조 8,761억원, 정비시설·장비에 2,250억원 등을 투자했으며, 정비·수리·개조 투자의 92.7%가 예방정비에 투입되었다.
-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417억원, 공항운영자는 3,460억원을 투자했으며, 공항운영자는 이착륙시설·항행안전시설, 소방·구조·제설장비 등 공항 안전 인프라에 주로 투자되었다.

《 '26년 및 '27년 안전투자 계획 》

- 항공업계는 '26년 17조 4,462억원의 안전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항공기 60대 도입에 7조 6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항공기 정비·수리·개조, 엔진·부품, 정비시설·장비 등 정비·부품 분야와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소방·구조장비 등 안전인프라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 '27년에는 항공사 통합 등에 따른 중복투자 조정 등 투자구조 변화로 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 신규 항공기 도입은 '27년에도 28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정비·부품 등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상시 안전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 '26~'27년 투자계획은 각 사업자의 주주총회,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산업이 성장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경영여건에 따라 안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전은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 “안전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안전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공시자료는 각 항공교통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www.airportal.go.kr)에서 9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영필	(044-201-4244)
		담당자	사무관	장인갑	(044-201-4254)
			주무관	김승진	(044-201-4247)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정책실	책임자	실 장	임재진	(032-727-5642)
		담당자	선임연구원	남승주	(032-727-5601)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 TOMORROW

1. '25년 항공안전투자 실적

【 2025년 항공안전투자 개요 】

- ◆ '25년 항공교통사업자의 총 항공안전투자액은 13조 3,098억원으로, 전년(6조 1,769억원) 대비 7조 1,329억원(115.5%) 증가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12조 9,221억원으로 전년(5조 8,744억) 대비 120% 증가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417억원으로 전년(121.6억) 대비 243.1% 증가
 - (공항운영자) 3,460억원으로 전년(2,904억) 대비 19.1% 증가
- ⇒ ('25년 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신규항공기와 항공안전 인력 고용비용 등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안전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비·부품·정비시설 등 기존 안전 분야의 투자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규항공기 도입을 제외한 안전투자(9조 424억원)가 전년(5조 3,397억원) 대비 69.3%(3조 7,027억원) 증가하여, 단순한 공시범위 확대 이상의 실질적인 안전투자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12개)

- (총투자액) '25년 안전투자는 12조 9,221억원으로 전년(5조 8,744억원) 대비 7조 477억원(120%) 증가
- FSC(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9조 996억원으로 전년(4조 6,336억원) 대비 96.4%(4조 4,660억원) 증가
 - LCC(제주항공·에어프레미아 등 10개 저비용항공사)는 3조 8,226억원으로 전년(1조 2,408억원) 대비 208.1%(2조 5,817억원) 증가
- ① (신규 항공기 및 안전인력 투자) 신규 항공기 도입에 3조 8,798억원, 안전 관련 종사자 고용비용(운항·객실·정비 등)에 3조 3,817억원 투자
- 신규 항공기는 FSC 15대, LCC 28대 등 총 43대 도입
 - 신규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국적항공사의 평균 항공기 기령은 '24년 12.4년 → '25년 12.1년으로 개선(△0.3년)

구분	대수	항공사	대수	항공사	대수
FSC	15	대한항공	14	아시아나	1
LCC	28	제주항공	6	에어프레미아	3
		에어부산	1	에어로케이	2
		트리니티항공	7	파라타항공	4
		이스타항공	5	-	

② **(기존 안전분야 투자)** 신규 항공기 도입을 제외한 안전투자는 9조 424억원으로 전년(5조 3,397억원) 대비 69.3%(3조 7,027억원) 증가

⇒ 총투자액 증가는 제도개선에 따른 공시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정비·부품·안전시스템 등 기존 안전분야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평가

③ **(정비·부품·정비시설)**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 3조 3,848억원 투자

○ 항공기의 운항 전 예방 차원의 사전정비는 92.7%(3조 1,485억원), 운항 중 고장·결함에 대한 사후정비는 7.3%(2,363억원)으로 예방 중심의 정비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 엔진·부품 구매·임차에는 1조 8,761억원을 투자하여 전년(1조 5,653억원) 대비 19.9%(3,109억원) 증가

○ 정비시설·장비*에는 2,250억원을 투자하여 전년(311억원) 대비 623.2%(1,939억원) 증가

* 대한항공 엔진 정비시설 구축(1,378억), 엔진 수리 능력 개발용 장비 구매(549억) 등

④ **(안전관리시스템)** 안전 관련 전산시스템에 512억원[전년(398억원) 比 113억원↑], 안전관리시스템에 93억원[전년(22억원) 比 71억↑]을 투자하여 위험요소 관리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

2 소형항공운송사업자(5개)

□ **(총투자액)** 417억원으로 전년 121.6억원 대비 243.1%(295.6억원) 증가

○ 항공기 도입(회전익 항공기 2대)에 249억원, 엔진·부품 구매에 42.8억원을 투자하여 전년(40.2억원) 대비 6.4%(2.6억원) 증가

○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 33.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사전정비가 98%(32.5억원)로 예방정비 중심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

- 항공안전 인력 고용비용의 신규 반영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는 55.6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2,956%(53.7억원) 크게 증가

③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총투자액)**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25년 안전투자는 3,460억원으로 전년(2,904억원) 대비 19.1%(556억) 증가

- 인천공항공사는 2,445억원으로 전년(1,902억원) 대비 28.6%(543억), 한국공항공사는 1,015억원으로 전년(1,002억원) 대비 1.3%(13억) 증가

① **(소방·구조 등 안전장비)** 소방·구조·제설 등에 필요한 차량·장비 구매에 186억원을 투자하여 전년(58.3억원) 대비 219.4%(127.8억원) 증가

* 한국공항공사: ('24) 15.9억→('25) 77.0억, 인천공항공사: ('24) 42.4억→('25) 109.0억

⇒ 공항의 비상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

② **(이착륙시설·항행안전시설)**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이착륙시설·항행안전시설에 1,756억원 투자(전년 2,156억 대비 400억↓, △18.6%)

- 인천국제공항공사 1,011억원, 한국공항공사 745억원을 각각 투자

⇒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등 4단계 대규모 시설사업의 투자주기에 따른 조정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유지

- **(인천공항공사)** 4단계 시설사업 관련 항공등화시설 구축에 82.5억, 공항지상관제시스템 고도화에 23.1억을 투자하였으며, 기존 항공등화시설 개선에 94.4억, 제2활주로 재포장에 188.4억 등을 투자

- **(한국공항공사)** 계류장·이동지역 등 보수·개선에 194억원, 레이더·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관련 고도화에 254억원 투자

③ **(조업시설·장비)** 조업시설·장비에 597.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587.4억원, 한국공항공사 10.2억원을 각각 투자

* 인천공항공사: ('24) 462.2억→('25) 587.4억, 한국공항공사: ('24) 9.6억→('25) 10.2억

- (한국공항공사) 격납고 및 부대건물 개선에 9.7억원, 계류장 내 조업시설 개선에 0.5억원 투자
 - (인천공항공사) 첨단복합항공단지시설 구축('25~계속)에 335.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6년까지 지속될 예정
 - ④ (조류충돌 예방 등) 양 공항공사는 조류충돌 관련 안전투자를 '25년 13.7억원 → '26년 85.1억원 → '27년 89.7억원으로 확대할 계획
 - (인천공항공사) 조류탐지레이더 구축(70억원), 통합감리(7.5억원) 등 77.5억원을 투자할 계획
 - (한국공항공사) 조류충돌 관련 실시설계 2건(13.1억원), 통합정보센터(12.7억원) 등 25.8억원을 투자할 계획
- * '26~'27년 항공기 이탈방지용 긴급제동 활주로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평균 1.5억원 투자

2. '26 ~ '27년도 항공안전투자 계획

【 총괄 】

- ◆ 항공사,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26년 17조 4,462억원, '27년 12조 8,327억원의 안전투자를 계획
 - ('26년) 신규항공기 60대 도입, 정비·안전인프라 확충 등에 따라 안전투자가 1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25년 실적(13조 3,098억) 대비 31.1%(4조 1,365억) ↑]
 - ('27년) 항공사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 조정 등 투자구조 변화로 '26년 대비 26.4%(4조 6,135억원) 감소 계획이나 정비·부품 등 안전운항이 필수적인 상시 안전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신규항공기 도입 추이: '25년 43대 → '26년 60대 → '27년 28대
- ※ 투자계획은 향후 각 사업자의 주주총회·이사회 결정, 경영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12개)

- '26년 16조 9,699억원, '27년 12조 4,947억원 투자 계획
- ① (신규항공기 도입) '26년에는 총 60대 신규항공기 도입에 7조 663억원을 투자할 계획

- FSC는 24대에 3조 8,379억원, LCC는 36대에 3조 2,2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항공기 현대화와 기령 개선에 기여할 전망
- '27년에는 신규항공기 28대 도입에 4조 8,4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6년보다 도입 규모가 감소*할 전망

* 항공사별 도입시기 조정 및 통합에 따른 투자계획 변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

② (정비·부품·인프라) '26년에는 정비·부품·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 3조 8,592억원, 엔진·부품 구매·임차에 1조 8,840억원, 정비시설·장비 구매에 4,731억원을 투자할 계획
- 항공사 통합 이후에는 정비조직·시설 통합, 부품 공동관리 등으로 중복투자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27년에는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등이 조정되면서 관련 투자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7년에는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 2조 8,575억원, 엔진·부품 구매·임차에 1조 4,750억원, 정비시설·장비 구매에 1,365억원을 투자할 계획

⇒ 다만, 정비·부품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상시 안전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② 소형항공운송사업자(5개)

□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26년 1,135억원('25년 比 718억원↑), '27년 366억원('26년 比 769억원↓)의 안전투자를 계획

- '26년에는 K-에비에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신규항공기 3대 도입(852.5억원)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27년에는 신규항공기 도입 감소로 총액은 감소하나, 정비·수리·개조, 엔진·부품 구매, 고용·교육훈련 등 상시 안전투자*는 지속

* 정비·수리·개조('26년 87.6억→'27년 94.4억, 7.8%↑), 발동기·부품 구매('26년 68.1억→'27년 75.2억, 10.4%↑), 교육훈련('26년 73.6억→'27년 88.6억, 20.4%↑) 등

③ 공항운영자(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공항운영자는 '26년 3,627억원, '27년 3,014억원을 투자할 계획
 - '26년에는 '25년(3,460억원)보다 167억원 증가한 시설 및 안전 관련 투자가 확대된 후, '27년에는 대규모 시설사업 완료 등에 따라 613억원 감소할 전망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4단계 건설사업 등 대규모 확장사업의 완료에 따라 시설투자 규모가 감소할 전망
 - '26년은 1,661억원[항행안전시설(268.5억원), 이착륙시설(228.9억원), 소방·구조장비(38.3억원) 등], '27년은 1,378억원을 투자할 계획
 - 한국공항공사는 '26년 항행안전시설(781.5억원), 이착륙시설(493.5억원), 소방·구조장비(163.7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1,966억원, 94% ↑)하고, '27년 1,637억원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 ⇒ 대규모 시설사업의 완료 이후에도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소방·구조 등 공항의 상시 안전관리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참고 2

항공안전투자 '25년 실적 및 '26년 ~ '27년 계획

(억원, %)

구분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24년 (A)	'25년 (B)	증감		'26년 (C)	'27년 (D)	증감	
			B-A	%			D-C	%
총 계	61,769.2	133,098.0	71,328.8	115.5%	174,462.1	128,327.0	△46,135.1	△26.4%
항공사	58,865.4	129,638.2	70,772.8	120.2%	170,834.8	125,312.9	△45,521.9	△26.6%
국제운송사업자	58,743.8	129,221.0	70,477.2	120.0%	169,699.4	124,947.2	△44,725.2	△26.4%
(FSC)	46,335.6	90,995.5	44,659.9	96.4%	108,120.1	68,453.0	△39,667.1	△36.7%
대한항공	32,244.4	72,241.5	39,997.1	124.0%	88,224.6	68,453.0	△19,771.6	△22.4%
아시아나항공	14,091.2	18,754.0	4,662.8	33.1%	19,895.4	(n/a)		
(LCC)	12,408.2	38,225.5	25,817.3	208.1%	61,579.3	56,494.2	△5,085.1	△8.3%
제주항공	3,134.5	9,775.7	6,641.2	211.9%	9,794.1	10,565.8	771.7	7.9%
에어부산	1,759.2	3,209.8	1,450.6	82.5%	3,151.8	3,151.8	-	-
진에어	1,985.8	4,079.9	2,094.1	105.5%	9,544.5	11,148.3	1,603.8	16.8%
트리니티항공	2,943.6	9,906.2	6,926.6	236.5%	24,112.0	16,290.3	△7,821.7	△32.4%
이스타항공	959.7	5,590.2	4630.5	482.5%	5,054.8	5,412.7	357.9	7.1%
에어서울	709.5	972.2	262.7	37.0%	1,185.0	1,185.0	-	-
에어제타	56.8	1,022.4	965.6	1,699.9%	3,818.1	3,262.1	△555.9	△14.6%
에어프레미아	695.4	2,278.1	1,582.7	227.6%	1,883.9	2,249.5	365.6	19.4%
에어로케이	163.7	720.0	556.3	339.8%	672.0	732.7	60.8	9.0%
파라타항공	(n/a)	671.1	671.1	-	2,363.2	2,496.0	132.8	5.6%
소형운송사업자	121.6	417.2	295.6	243.1%	1,135.4	365.7	△769.7	△67.8%
글로리아항공	20.8	27.8	7.0	33.7%	30.8	30.8	-	-
헬리코리아	6.9	10.6	3.7	53.0%	12.4	5.5	△6.9	△55.6%
유아이헬리제트	32.8	42.0	9.2	28.0%	327.4	51.5	△275.9	△84.3%
더스카이	10.6	33.5	22.9	216.5%	66.6	92.9	26.3	39.5%
케이에비에이션	50.5	303.3	252.8	500.5%	698.2	185.0	△513.2	△73.5%
공항운영자	2,903.8	3,459.8	556.0	19.1%	3,627.3	3,014.1	△613.2	△16.9%
한국공항공사	1,001.7	1,014.6	12.9	1.3%	1,966.1	1,636.5	△329.6	△16.8%
인천공항공사	1,902.1	2,445.2	543.1	28.6%	1,661.2	1,377.6	△283.6	△17.1%

* 투자계획은 주주총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투자 특징

- 대한항공: 신규 항공기 및 인력 관련 투자 확대
- LCC: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인력 고용·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
- '26년에는 대한항공 8.8조원, 트리니티항공 2.4조원 등 대규모 투자계획

참고 3

항공안전투자 FSC/LCC별 현황

(억원, %)

항목	총계				FSC				LCC			
	합계		증감		합계		증감		합계		증감	
	24년	25년	금액	비율	24년	25년	금액	비율	24년	25년	금액	비율
① 신규항공기 도입*	5,347.2	38,797.6	33,450.3	625.6%	4,804.9	24,118.1	19,313.1	401.9%	542.3	14,679.5	14,137.2	2,606.9%
②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괄호 안의 값=정비사 인건비)	사전 정비	31,485.3	-	-	23,194.9	-	-	-	8,290.3	-	-	-
	사후 정비	36,077.8 (5,227.1)	2,362.8	-	28,654.8 (4,285.9)	1,164.4	-	-	7,423.0 (941.2)	1,198.5	-	-
	계	33,848.1	△2,229.7	△6.2%	24,359.3	△4,295.4	△15.0%	-	9,488.8	2,065.8	27.8%	-
③ 발동기·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15,652.7	18,761.2	3,108.5	19.9%	11,901.3	15,089.5	3,188.2	26.8%	3,751.5	3,671.7	△79.8	△2.1%
④ 정비시설·장비 구매 및 유지 관리	311.1	2,250.0	1,938.9	623.2%	160.5	2,081.1	1,920.6	1,196.6%	150.6	168.9	18.3	12.2%
⑤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관리 등	22.1	92.8	70.7	320.6%	3.0	46.5	43.5	1,450.0%	19.1	46.3	27.2	142.4%
⑥ 항공종사자의 고용·교육훈련 (괄호 안의 값=인건비)	904.2	34,879.7	33,975.6	3,757.7%	594.9	25,077.3	24,482.4	4,115.4%	309.2	9,802.4	9,493.2	3,070.2%
⑦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9.4	0.5	△8.9	△94.7%	9.4	0.5	△8.9	△94.7%	-	-	-	-
⑧ 항공안전 증진 홍보	3.4	42.1	38.7	1,138.2%	2.2	2.1	-0.1	△4.5%	1.3	40	38.7	2,976.9%
⑨ 안전관련 전산시스템	398.5	511.5	113.0	27.9%	204.5	218.6	14.1	6.9%	194.0	293.0	99.0	51.0%
⑩ 기타 안전지출	17.4	37.6	20.2	116.1%	0.2	2.5	2.3	1,150.0%	17.2	35.1	17.9	104.1%
소계 (항공기 제외)	53,396.6	90,423.5	37,026.9	69.3%	41,530.7	66,877.4	25,346.7	61.0%	11,865.9	23,546.2	11,680.3	98.4%
총계**	58,743.8	129,221.0	70,477.2	120.0%	46,335.6	90,995.4	44,659.8	96.4%	12,408.2	38,225.5	25,817.5	208.1%

* '24년 신규 항공기 도입은 경년항공기 도입 실적이며, '24년 총계에는 신규 항공기 도입 실적이 미포함됨

□ FSC/LCC별

- FSC: 4조 6,336억원 → 9조 996억원(96.4% 증가)
- LCC: 1조 2,408억원 → 3조 8,226억원(208.1% 증가)

참고 4

1만운항당 및 항공기 1대당 항공안전투자 규모

(안전투자 - 억원, % / 운항량 - 편 / 운용항공기 - 대)

구분	'24년					'25년				
	안전 투자 (A)	운항량 (B)	운용 항공기 (c)	1만운항당 안전투자 A*(10,000/B)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A/C)	안전 투자 (A)	운항량 (B)	운용 항공기 (c)	1만운항당 안전투자 A*(10,000/B)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A/C)
총 계	58,743.8	526,666	412	1,115.4	142.6	129,221.0	541,791	441	2,385.1	293.0
(FSC)	46,335.6	230,180	245	2,013.0	189.1	90,995.5	234,027	235	3,888.2	387.2
대한 항공	32,244.4	143,274	163	2,250.5	197.8	72,241.5	147,212	167	4,907.3	432.6
아시 아나	14,091.2	86,906	82	1,621.4	171.8	18,754.0	86,815	68	2,160.2	275.8
(LCC)	12,408.2	296,486	167	418.5	74.3	38,225.5	307,764	206	1,242.0	185.6
제주 항공	3,134.5	80,648	40	388.7	78.4	9,775.7	75,359	45	1,297.2	217.2
에어 부산	1,759.2	44,001	21	399.8	83.8	3,209.8	38,508	21	833.5	152.8
진에어	1,985.8	60,555	31	327.9	64.1	4,079.9	62,998	31	647.6	131.6
트리니 티항공	2,943.6	58,565	38	502.6	77.5	9,906.2	62,028	46	1,597.1	215.4
이스타	959.7	26,723	6	359.1	160.0	5,590.2	33,600	20	1,663.8	279.5
에어 서울	709.5	11,918	15	595.3	47.3	972.2	11,555	6	841.4	162.0
에어 제타	56.8	3,384	6	167.8	9.5	1,022.4	6,470	15	1,580.2	68.2
에어프 레미아	695.4	2,783	4	2,498.7	173.9	2,278.1	4,118	9	5,532.1	253.1
에어로 케이	163.7	7,909	6	207.0	27.3	720.0	12,282	9	586.2	80.0
파라타 항공	-	-	-	-	-	671.1	846	4	7,932.2	167.8

※ 운항량 기준: 국내선 출발, 국제선 출발+도착(출처: 항공정보포털)

※ '26~'27년은 계획 운항량 및 운용항공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산정하지 않음

참고 5

신규 항공기 도입 및 계획

□ 신규항공기 도입 실적 및 계획

(억원, %)

구분	투자 실적			투자 계획			
	2025년			2026년		2027년	
	항공기 도입 규모 (A)	도입 대수 (B)	1대당 도입 가격 (A/B)	항공기 도입 규모	도입 대수	항공기 도입 규모	도입 대수
국제운송사업자	38,797.6	43	902.3	70,662.6	60	48,426.8	28
(FSC)	24,118.1	15	1,607.9	38,379.1	24	21,744.2	-
대한항공	23,721.4	14	1,694.4	38,379.1	24	21,744.2	-
아시아나항공	396.7	1	396.7	-	-	-	-
(LCC)	14,679.5	28	524.3	32,283.5	36	26,682.6	28
제주항공	4,841.4	6	806.9	5,481.6	7	6,150.8	8
에어부산	34.5	1	34.5	-	-	-	-
진에어	-	-	-	5,435.8	8	7,639.3	-
트리니티항공	4,088.1	7	584.0	17,032.3	16	8,800.5	8
이스타항공	4,316.8	5	863.4	2,513.4	4	2,389.5	1
에어서울	-	-	-	-	-	-	-
에어제타	-	-	-	-	-	-	2
에어프레미아	874.5	3	291.5	-	-	-	4
에어로케이	202.0	2	101.0	-	-	-	1
파라타항공	322.2	4	80.6	1,820.4	1	1,702.5	4

※ '26년 및 '27년 항공기 도입 대수는 각 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6

'25년도 1만운항당 및 항공기 1대당 항공사 안전투자 순위

□ 1만운항당 항공사 안전투자 순위

(안전투자 - 억원, % / 운항량 - 편)

순위	항공사	안전투자(A)	운항량(B)	1만운항당 안전투자 (A*(10,000/B))
1	파라타항공	671.1	846	7,932.2
2	에어프레미아	2,278.1	4,118	5,532.1
3	대한항공	72,241.5	147,212	4,907.3
4	아시아나항공	18,754.0	86,815	2,160.2
5	이스타항공	5,590.2	33,600	1,663.8
6	트리니티항공	9,906.2	62,028	1,597.1
7	에어제타	1,022.4	6,470	1,580.2
8	제주항공	9,775.7	75,359	1,297.2
9	에어서울	972.2	11,555	841.4
10	에어부산	3,209.8	38,508	833.5
11	진에어	4,079.9	62,998	647.6
12	에어로케이	720.0	12,282	586.2

□ 1대당 항공사 안전투자 순위

(안전투자 - 억원, % / 운용항공기 - 대)

순위	항공사	안전투자(A)	운용 항공기(B)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A/B)
1	대한항공	72,241.5	167	432.6
2	이스타항공	5,590.2	20	279.5
3	아시아나항공	18,754.0	68	275.8
4	에어프레미아	2,278.1	9	253.1
5	제주항공	9,775.7	45	217.2
6	트리니티항공	9,906.2	46	215.4
7	파라타항공	671.1	4	167.8
8	에어서울	972.2	6	162.0
9	에어부산	3,209.8	21	152.8
10	진에어	4,079.9	31	131.6
11	에어로케이	720.0	9	80.0
12	에어제타	1,022.4	15	68.2

※ '26~'27년은 계획 운항량 및 운용항공기 규모 미확정으로 순위 산정 제외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고시)

- (법 제133조의2) 항공교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안전투자 내역을 매년 공시

*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 국제·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 (고시) 안전투자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도입 배경

- 관리자가 안전 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장에 필요한 적정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 항공안전 투자내역의 정기적 공개를 통해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유도

※ (해외 사례) 유사제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업공시(美증권거래위, 유럽증권시장감독청 등) 내역을 통해 ①정비 비용+②부품구매 비용은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

☞ '23년도 주요 항공사(FSC) 매출 比 항공기 정비·부품 투자비율 비교(%)

- 델타 4.2, 아메리칸 6.2, 루프트한자 2.4, 에어프랑스 8.5 vs 대한 14.6, 아시아나 18.3

□ 주요 추진 경과

- (근거마련)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안전투자공시) 신설('19.11 공포)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22.11.27) 시행(※ '20~'22년 시범운영)

-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고시, '20.9)

- (시범운영)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의 이해 제고('20~'22)

- (공시 대상) 19개 항공교통사업자* 대상 안전투자 내역 공시

* 국제·국내운송사업자 12개社, 소형운송사업자 5개社, 인천·한국공항공사 2개기관

** 공시사업자: ('20)4개→('21)10개→('22)19개→('23)19개→('24)18개→('25)18개→('26)19개

참고 8

항공안전투자 공시 항목 및 산출기준

범위	항목	세부내용
항공기 및 부품	① 항공기의 신규도입	-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
	②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 항공기·발동기·부품 등의 정비 및 수리·개조하는데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 * 자사가 보유 또는 운영 중인 항공기 등의 정비·수리·개조를 위한 재료비 등 정비비
	③ 발동기·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 항공기 운용을 위하여 발동기 및 부품 등의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 * 타 항공사와의 부품 공동관리 또는 공동사용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지출(또는 투자)도 포함
	④ 정비시설·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	- 항공기 등의 정비 및 보관 등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설치·개선·구매·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 * 정비고·부품창고 등의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항공기 등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및 장비·공구 등의 구매·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⑤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 「공항시설법」 제43조에 의해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출(또는 투자)하였거나 지출(또는 투자)이 계획된 비용 - 항공교통사업자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공항시설 중 다음 시설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출(또는 투자)하였거나 지출(또는 투자)이 계획된 비용 1)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 이착륙시설 2)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3) 조류충돌 예방 등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시설
	⑥ 소방·제설·제빙·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	-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과 관련된 소방, 제설, 제빙방 등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의 구매, 운용, 임차,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출(또는 투자)하였거나 지출(또는 투자)이 계획된 비용
	⑦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등을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
⑧ 항공종사자·직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		-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운영을 위해 소속 항공종사자 및 직원의 고용,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 * 직접교육비와 교육시설 및 설비 구매·운용을 위해 지출된 경비 포함
⑨ 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출(또는 투자)하였거나 지출(또는 투자)이 계획된 비용
⑩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 항공사고예방 등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소속 종사자 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예정인 안전 홍보를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 * 행사개최 비용, 인쇄물·영상물 제작비용, 언론홍보 등 광고비용을 포함
⑪ 전산관리시스템		- 항공기 등의 정비 또는 사내 안전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구매비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
⑫ 기타		- 검토위원회를 거쳐 항공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지출 또는 투자